

# 심사평

한계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심사위원장



특집

제6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이번 '제6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에는 41개 회사에서 50개 제품이 출품되었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S/W분야 4개 제품, H/W분야 5개 제품,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 6개 제품 등 14개 회사의 15개 작품을 최종 심사대상으로 올려놓은 뒤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심사결과,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글자판을 손쉽게 익힐 수 있게 고안한 멀티미디어학습 교재인 '아리수미디어'의 '타이핑 마법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은 우리나라 법령과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거의 모두를 광범위하게 수록한 법령 관계 작품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을 투입한 '조세통람사'의 '이누스DB99'를 선정하였다. 이 제품은 밤낮없이 수시로 변동되는 법령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엄청난 작업을 소규모 기업에서 해냈는데에 대해서 최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보통신 장관상으로는 피교육자가 현장이나 실습실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각종 실습과 연구 내용들을 PC위에서 실습하게 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학습하려는 기술과 기능을 손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터보테크'에서 출품한 'CNC가공 및 NC코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S/W부분의 정보통신부장관상은 컴퓨터 초보자도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동영상, 사진, 음악, 문자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고안한 '포토뱅크 멀티미디어'의 '포토뱅크3.0'이 선정되었다.

H/W부분의 정보통신부장관상은 삼성전자의 'CDMA 단말기용MSM'이 선정되었다. 이 제품은 부가 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대통령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작품이었다. 앞으로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면 미국 켈컴사의 제품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면 전세계적인 최첨단 기술로 부상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성이 크게 돋보였다. 국무총리상으로는 '윈컴소프트'의 '다빈치'를 선정하였다. 이 제품은 전체적인 그래픽 처리가 아주 뛰어났으며, 외국제품보다 훨씬 손쉽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각종 영상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특히 돋보였다. 그리고 공간처리와 속도, 이동성 및 색채 처리기법이 독특하여 누구든지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술의 응용 기법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표현하는 용이성과 편리성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최종적으로 멀티미디어기술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LG전자의 'LGE60 Color PDP'에게로 돌아갔다. 이 제품은 LG에서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기술을 보유했다는 측면이 높이 평가되어 최고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술력의 비교우위와 기반기술 확보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등 파급효과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었다.

끝으로 이번 '제6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의 심사는 수많은 돌들 중에서 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옥들 중에서 더 좋은 옥을 찾는 듯한 작업이었다. 심사위원들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다가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 시 심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좀 아쉬웠던 점은 우수한 제품들이 사소한 뒷처리를 소홀히 하여 주요 원인과 핵심 기능들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켜 수상제품의 대열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앞으로 작품을 마무리할 때 이 같은 점을 보완하여 제품개발에 진력하면 아주 좋은 제품이 출품될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좋은 착상과 고무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작품에 반영되고가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의 멀티미디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굳건해져 우리의 멀티미디어 발전에 큰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출품을 계기로 세계적인 고급제품들이 더욱 더 많이 작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6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심사평을 가름한다.